|  |  |
| --- | --- |
| **쌍용자동차-2** | **보 도 자 료** |
| 2014년 7월 23일(수) |

|  |
| --- |
| 쌍용자동차, 상반기 매출 17,283억…전년동기 대비 4.1% 증가 |
| **▪ 판매, 매출 전년대비 각각 6.9%, 4.1% 증가, 환율 하락 및 통상임금 영향으로 영업손실 규모 확대**  **▪ 2분기 판매 1분기 대비 2.4% 성장, 수출도 6.3% 증가, 글로벌 판매 점차 안정화**  **▪ 수출선 다변화, 신흥시장 발굴 등 글로벌 판매확대 및 수익성 개선 추진** |
| 쌍용자동차(대표이사 이유일; www.smotor.com)가 지난 상반기 내수 33,235대, 수출 41,000대(CKD 포함)를 포함 총 74,235대를 판매해 ▲매출 1조 7,283억 원 ▲영업손실 165억 원 ▲당기 순손실 185억 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.  이러한 실적은 글로벌 SUV 시장의 성장세와 주력 모델의 판매 호조로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6.9%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환율 하락 등 수출 채산성 악화로 인해 영업손실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5% 정도 확대된 것이다.  특히 3개월 연속 판매가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7.3%나 증가했던 1분기에 비해 2분기 들어 판매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.7% 감소세를 나타낸 것도 손익에 큰 영향을 미쳤다.  상반기 내수 판매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3.5%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으나, 전년 동기대비 26.4% 증가했던 1분기에 비해 2분기는 2.8% 증가하는데 그쳐 판매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.  수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.1% 증가했으나, 지난 1분기 전년 대비 10.6% 증가했던 실적이 2분기에는 4.8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환율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.  그러나 지난 2분기 판매가 1분기보다 2.4% 증가하며 전 분기 대비로는 증가세를 나타냈고, 수출도 전 분기 대비 6.3% 증가한 실적을 보이는 등 글로벌 판매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.  차종별 판매는 ‘뉴 코란도 C’와 ‘코란도 스포츠’가 전년 대비 각각 8.7%, 17.3% 증가한 28,923대 및 19,484대를 기록하며 전체 판매의 65%를 점유함으로써 주력모델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.  다만, 이러한 판매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에 따른 매출손실 확대, 수출 현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용 증가, 내수 제품 믹스 변화에 따른 매출 감소 영향 및 통상임금 관련 충당금 반영 등으로 영업손실과 당기 순손실 규모는 각각 △165억 원, △185억 원으로 확대됐다.  이미 쌍용자동차는 러시아 등 주요 수출국의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출 채산성 악화 및 브릭스(BRICs) 시장에서의 수요 감소에 대비해 올해 판매목표를 기존 사업계획 대비 약 6% 정도 하향 조정한 바 있다.  쌍용자동차 이유일 대표이사는 “급격한 환율하락에 따른 우려가 가시화 되면서 전반적인 판매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 규모가 확대 됐다” 며 “다양한 글로벌 판매확대 방안 시행과 함께 강력한 비상경영 시행을 통해 판매 확대와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 <끝> |